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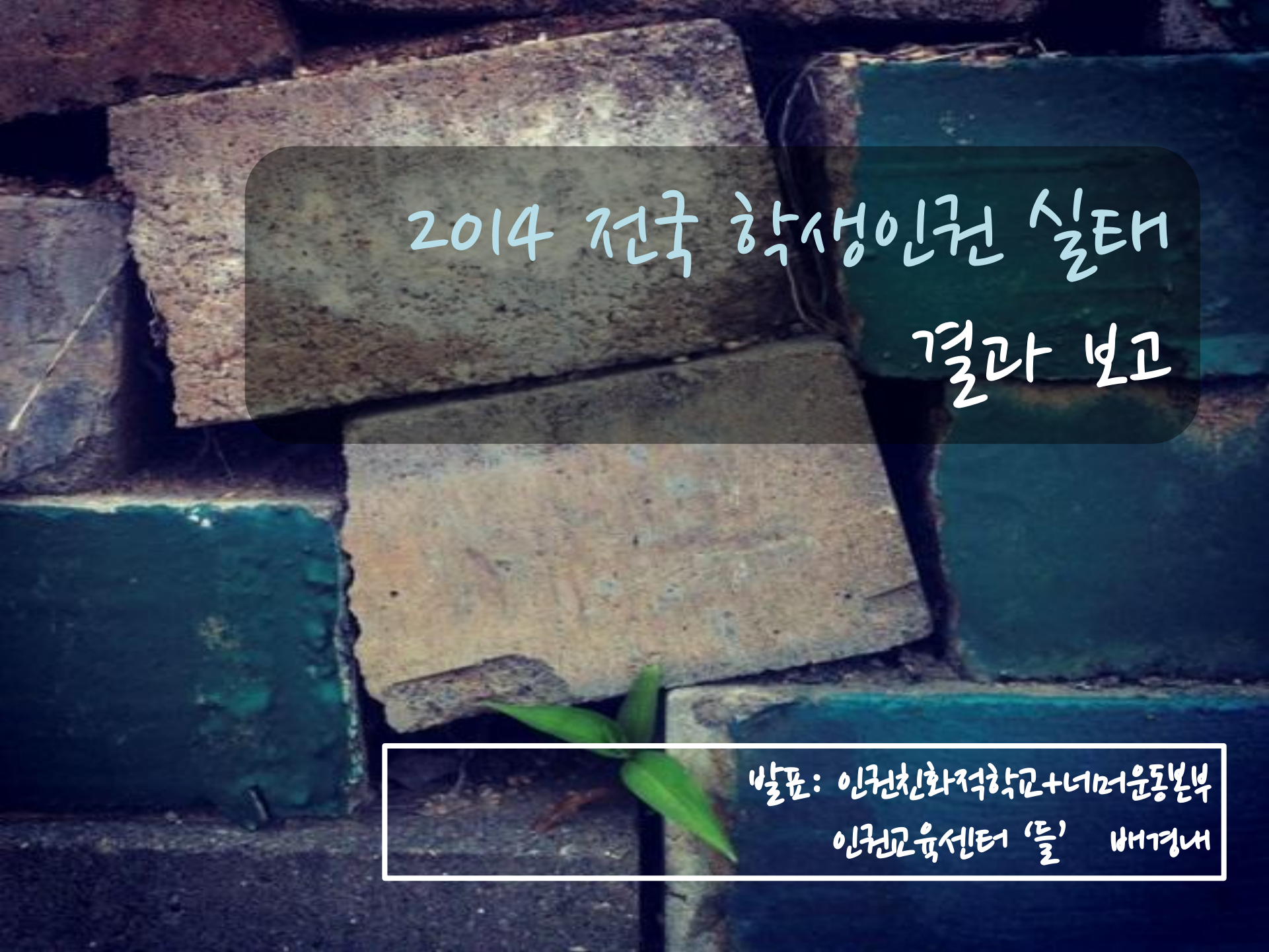


2014 전국 학생인권침해 어워즈 ?

2014 전국 학생인권 실태조사 발표회

일시 2014년 10월 28일 화요일 오전11시

장소 (서울 서대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2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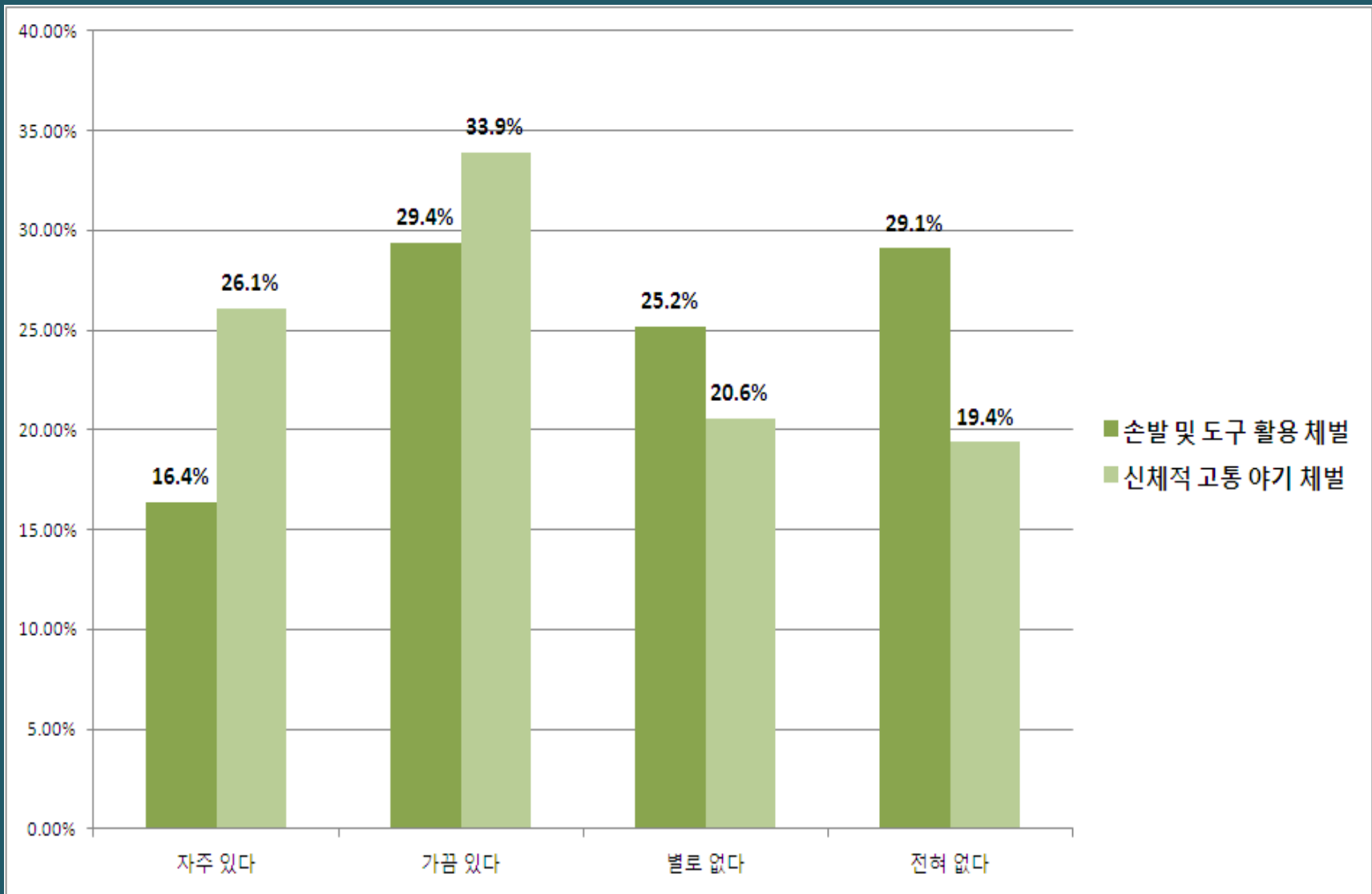
2014 전국 학생인권 실태 결과 보고

발표: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
인권교육센터 '들' 배경내

조사 목적과 개요

- ✕ 학생인권침해 전국 현황과 지역별 격차 확인
- ✕ 학생인권침해 다발 또는 낙후 지역의 정책 과제 파악과 제시
- ✕ '진보교육감' 당선 지역의 출발선 확인하고 지속적 점검 추진
- ✕ 전국 중고등학생 5,845명 참여 (지역별 임의 할당)

학생인권 유형별
침해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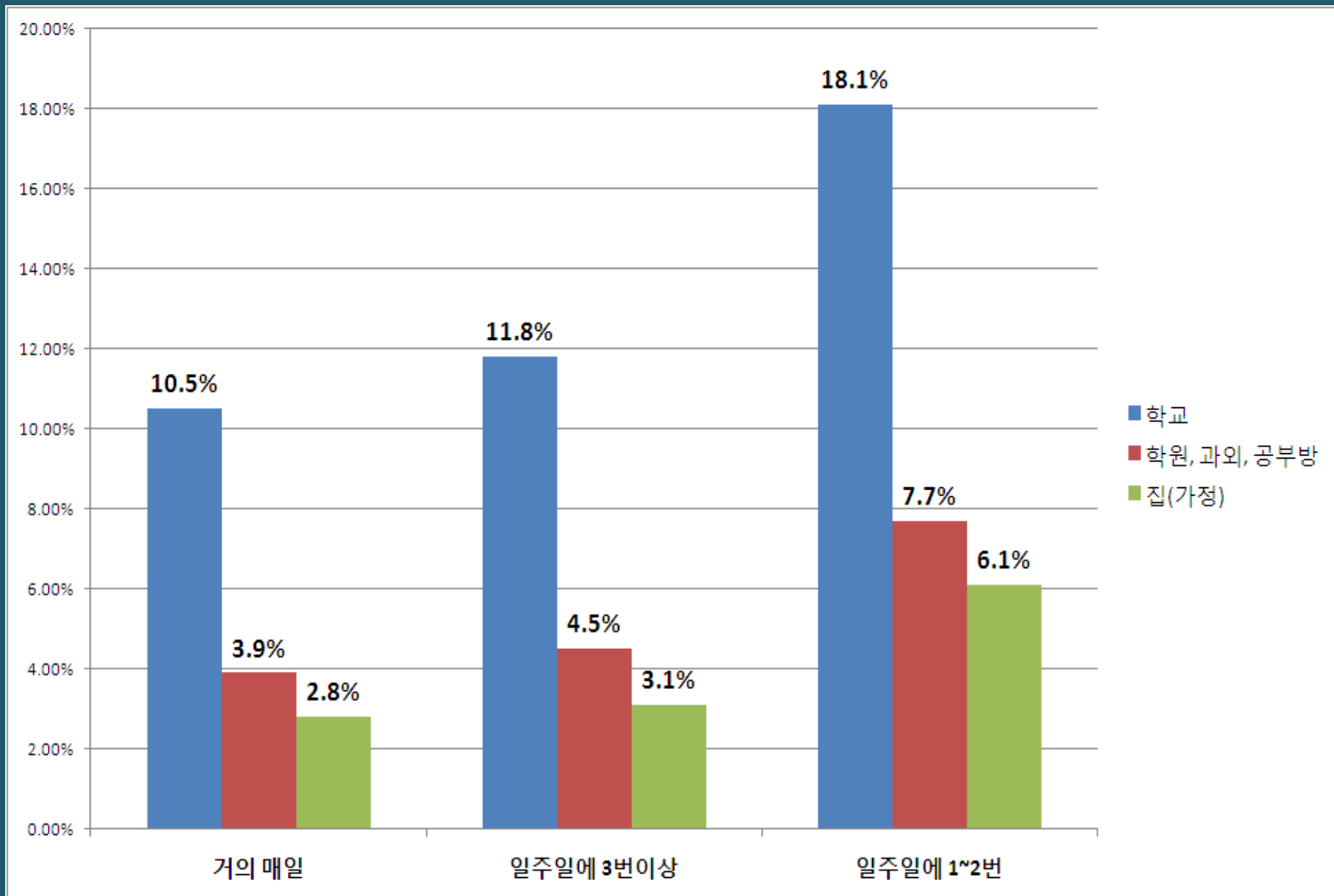


두 명 중 한 명은 맞거나 맞는 걸 본다
60%가 기합성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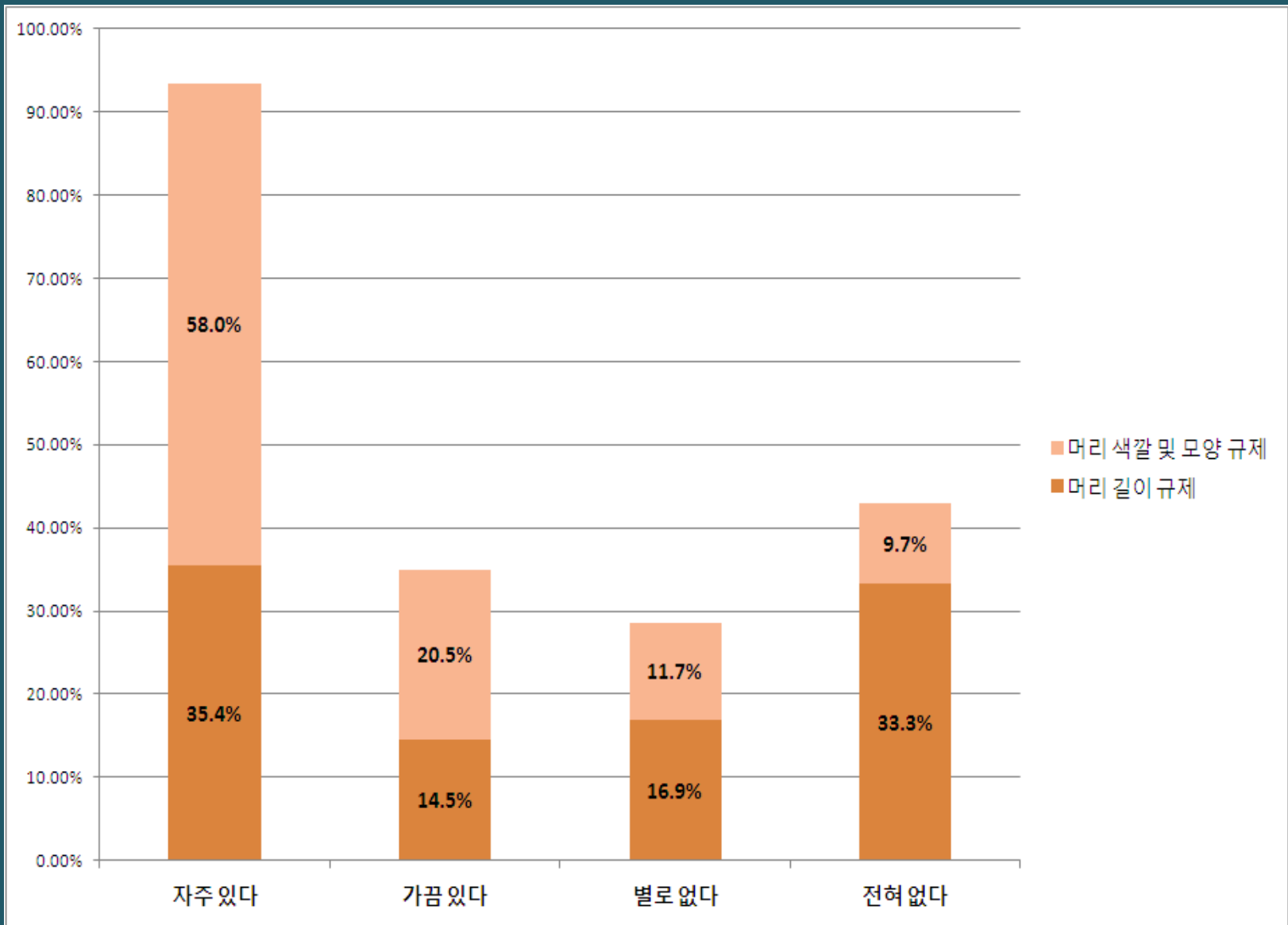
교사의 언어폭력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빈도	898	1585	1798	1550	5831
백분율	15.4%	27.2%	30.8%	26.6%	100.0%

절반 가까이가 언어폭력에 시달린다



절반 가까이가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번 이상 폭력을 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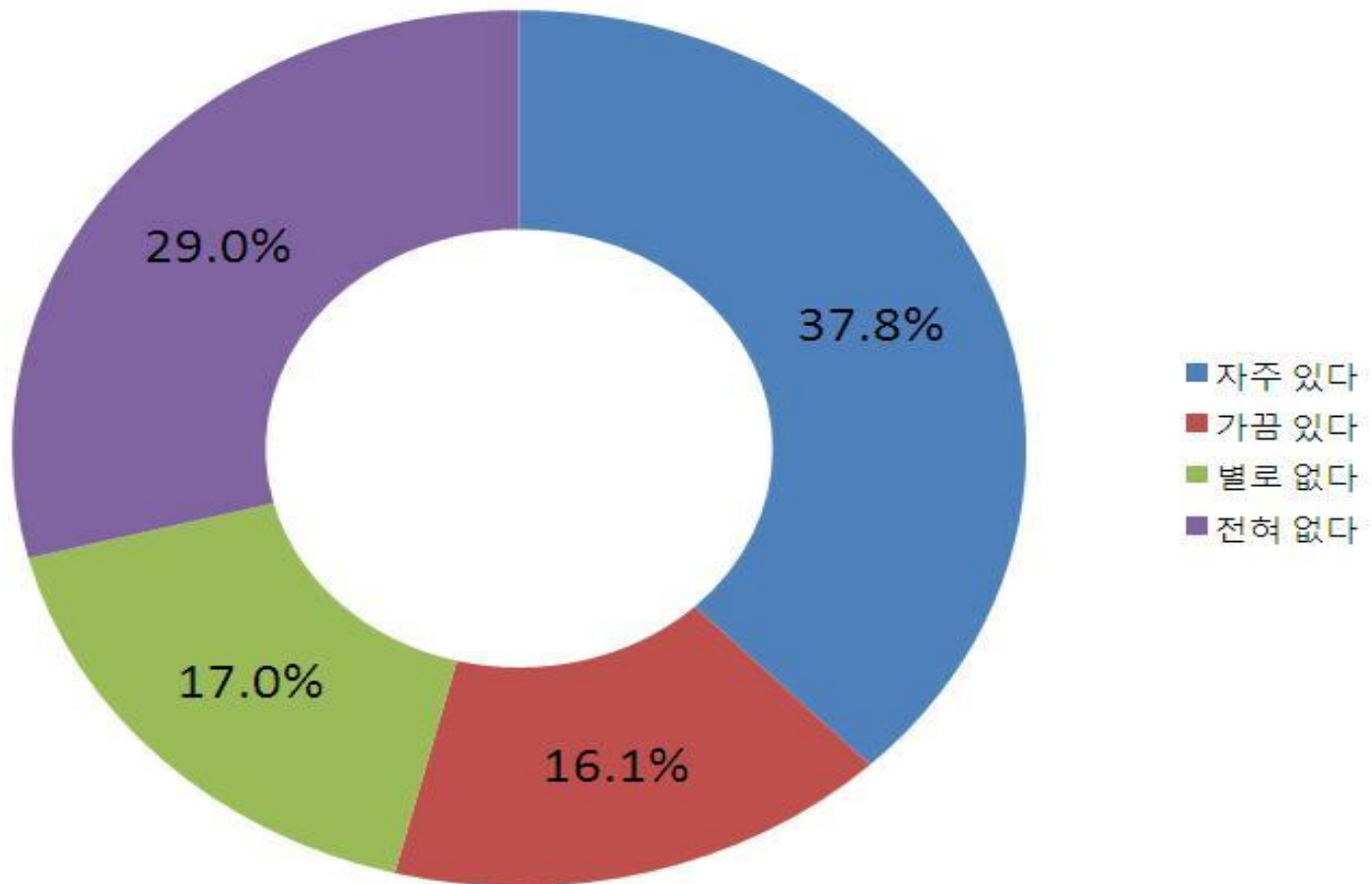
둘 중 하나는 두발 길이 규제까지 당한다

양말, 외투 등 옷에 대한 규제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빈도	2575	1425	945	891	5836
백분율	44.1%	24.4%	16.2%	15.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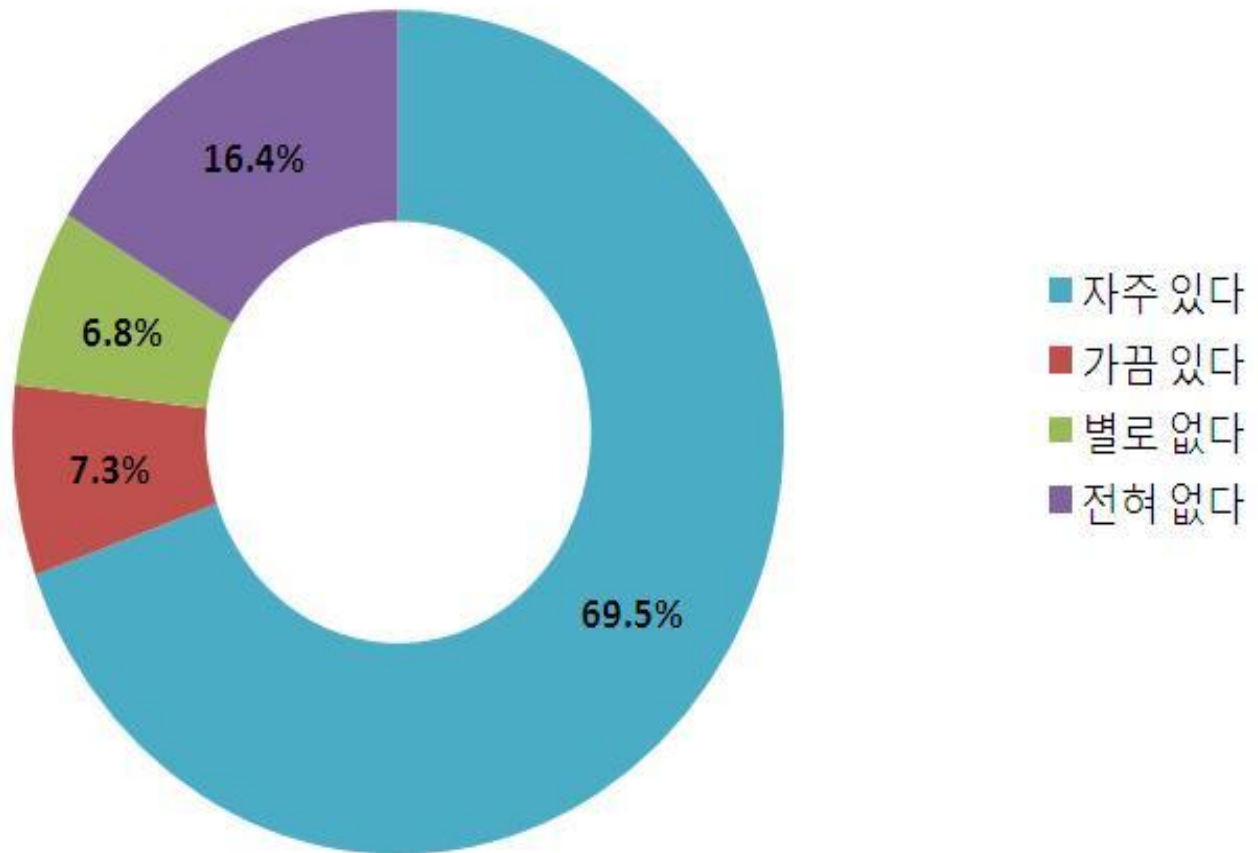
셋 중 둘 가까이 복장규제 자주 또는 가끔 경험

방과후학교, 보충, 야자 등 강제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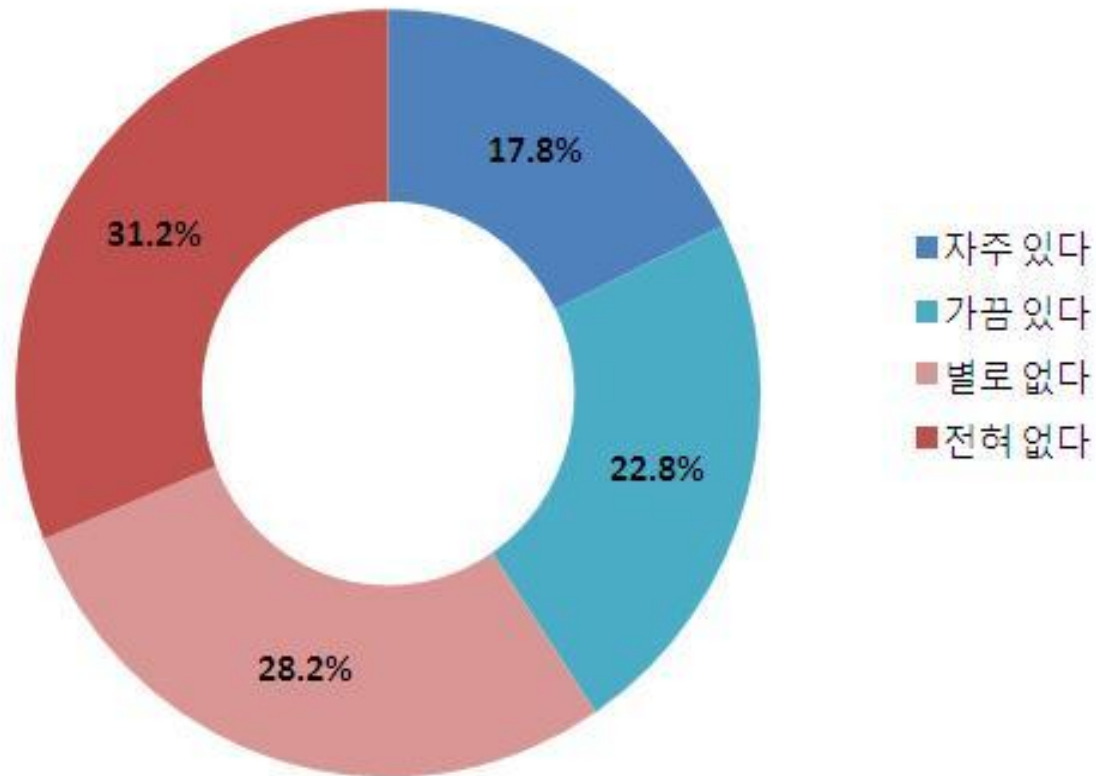
절반 이상이 강제학습 시달린다

쉬는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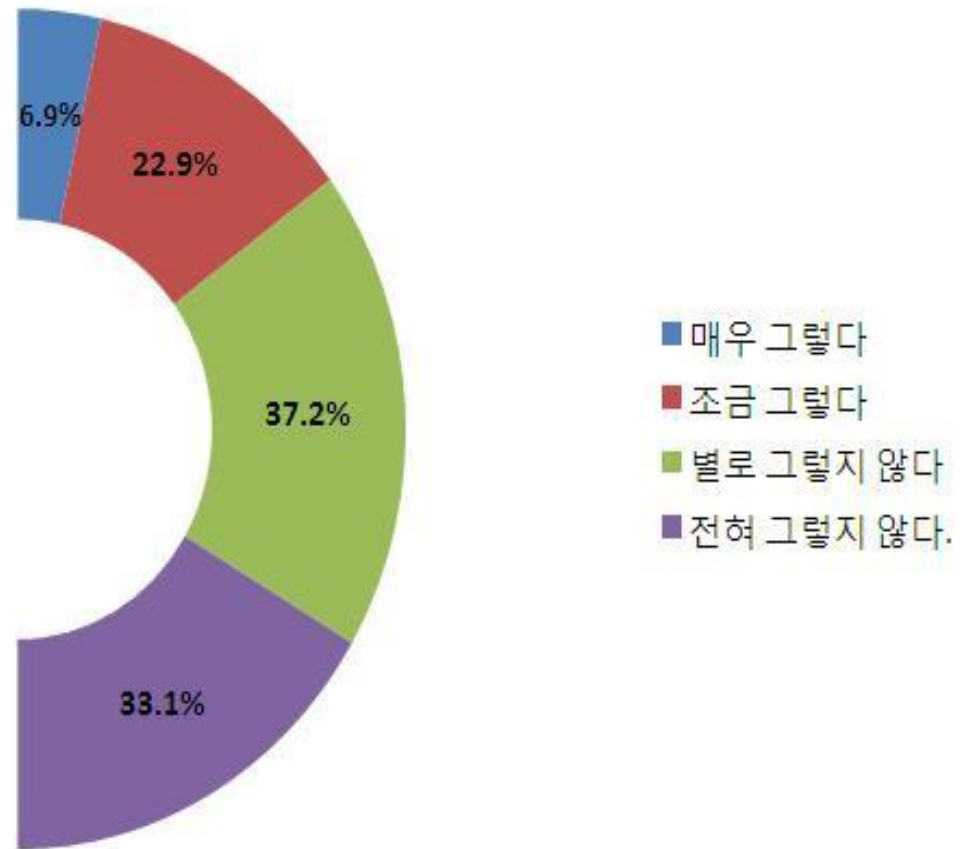
셋 중 둘이 자유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 못한다

성적공개 및 성적으로 인한 모욕감



절반 가까이가 성적 때문에 모욕

학칙 제개정에 학생참여 보장



셋 가운데 둘은 학생 의견 묵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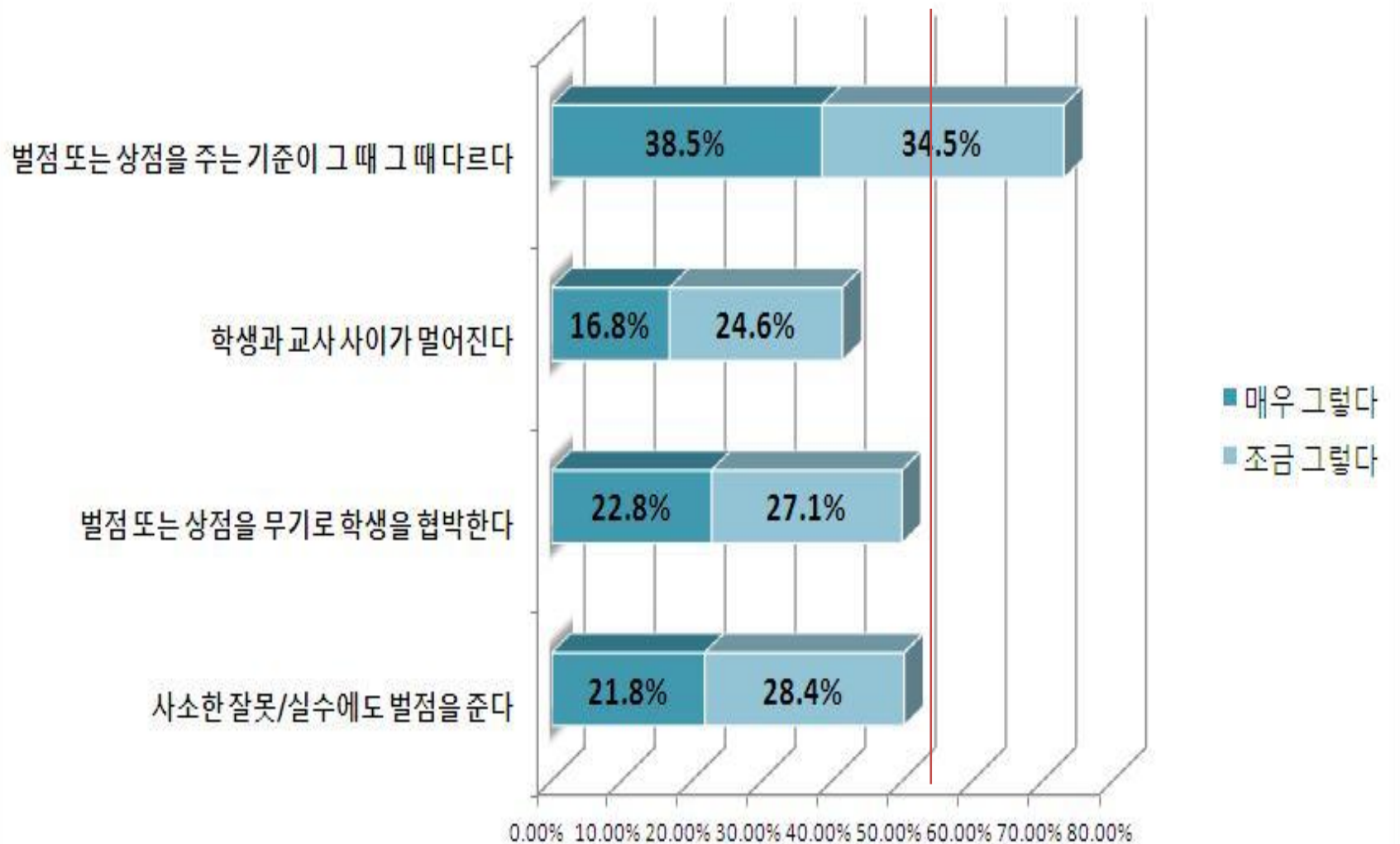
학생들이 교사나 학교에 의견을 말하면 잘 반영된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빈도	334	1247	2302	1956	5839
백분율	5.7%	21.4%	39.4%	33.5%	100.0%

교사나 학교에 의견을 말할 때 혼나거나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된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빈도	1428	1948	1525	941	5842
백분율	24.4%	33.3%	26.1%	16.1%	100.0%

셋 중 둘, 의견 반영 안된다
절반 가까이, 의견 말할 때 두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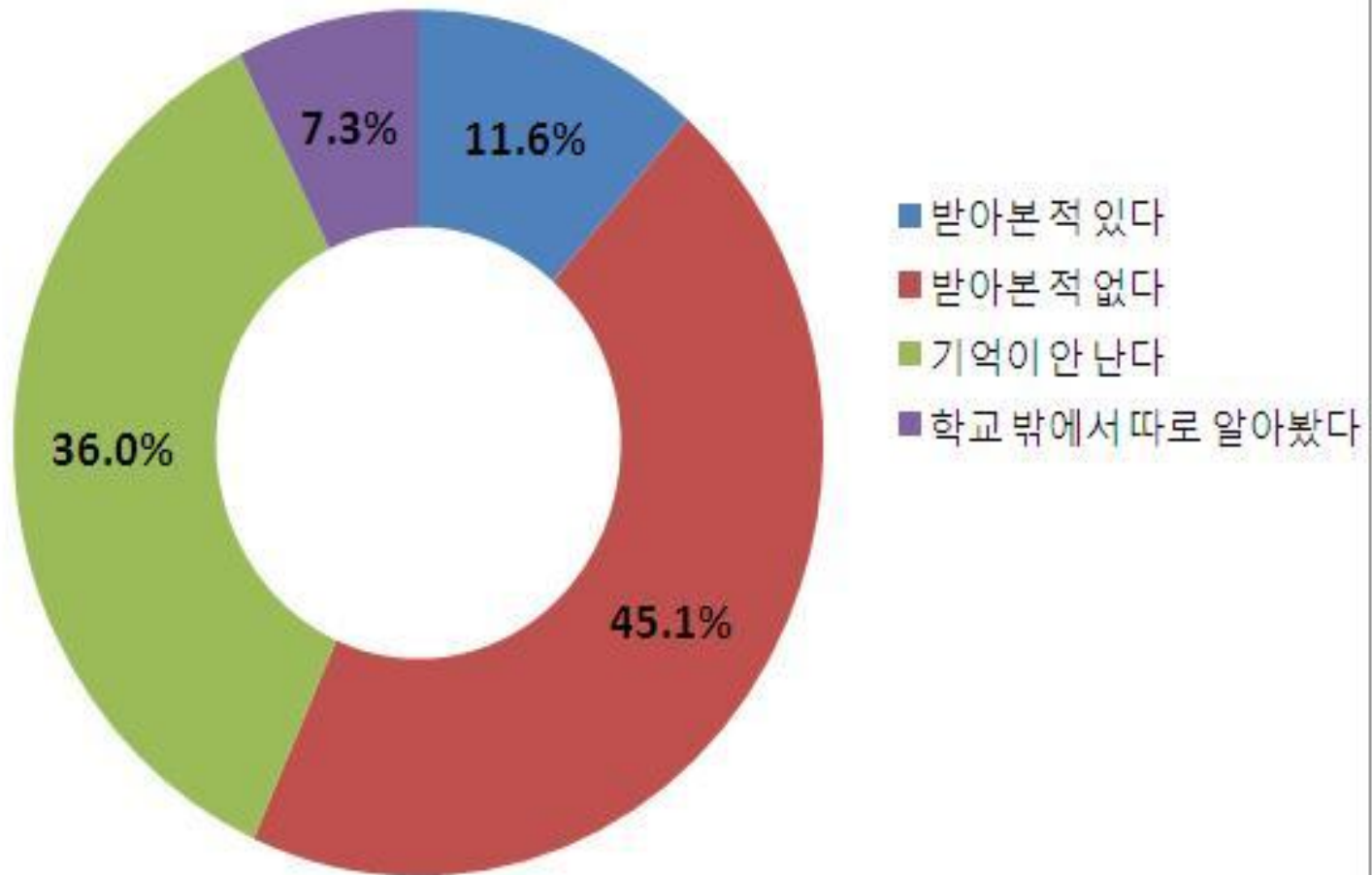
벌점제의 오남용, 비교육적 효과 심각

기숙사 생활 학생 중 인권침해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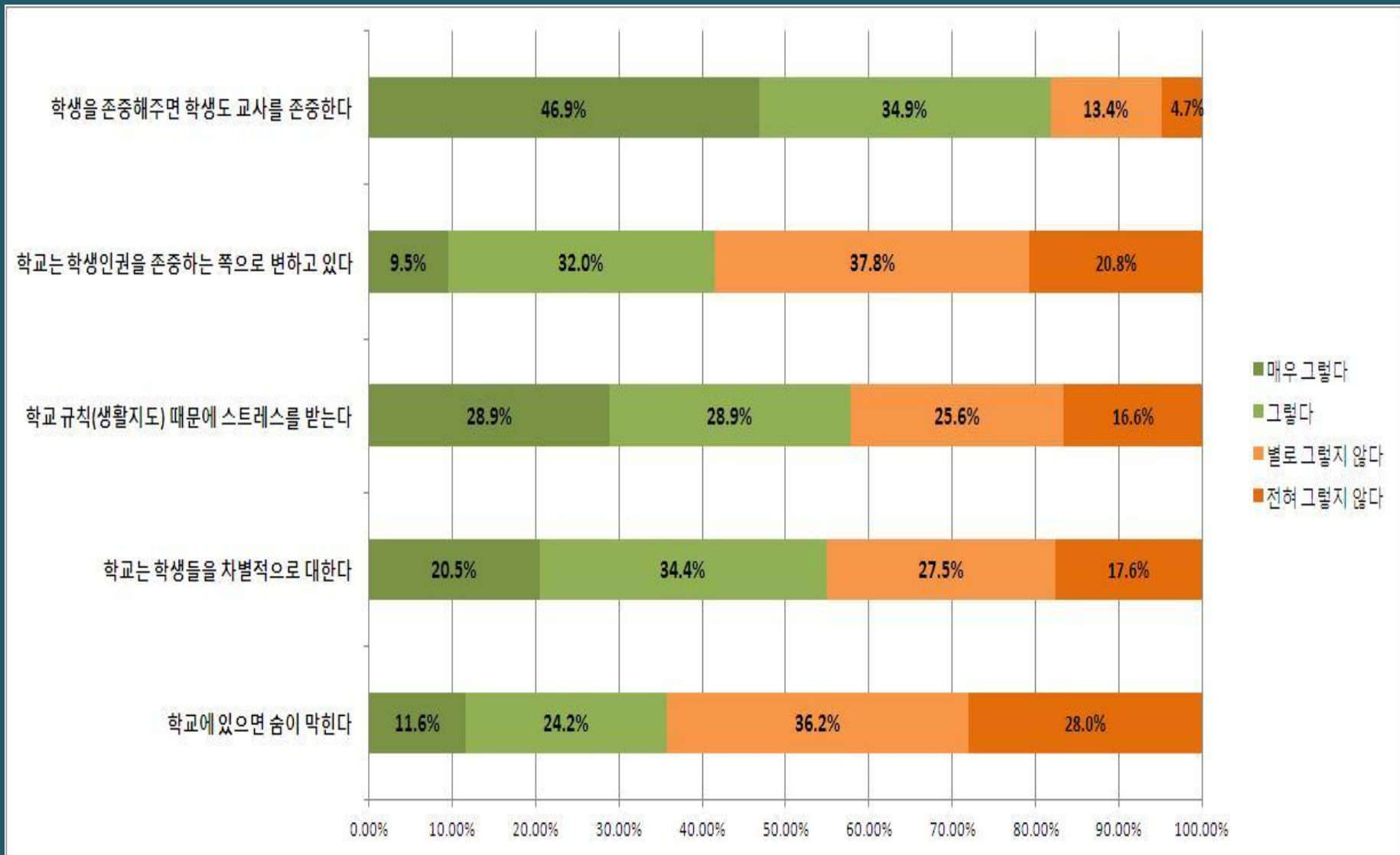
	기숙사 교사의 체벌	기숙사교 사의 기합	선후배사 이의 폭 력/기합	선후배사 이의 성 폭력	소지품 검사	자습강 요	기타
생활자 중 경험률	19.2%	30.8%	19.9%	2.5%	35.9%	45.7%	9.4%

하교후 기숙사에서도 중복 인권침해 심각해

학생인권교육 경험



권리를 알 권리, 인권교육 경험은 열 중 하나에 불과



학교에 대한 부정적 생각 심각

학생인권 지역별 순위와 격차

체벌-언어폭력 '우수' 다발 지역

순위	교사에 의한 손발이나 도구를 활용한 체벌	교사에 의한 앉았다 일어서기, 오리걸음, 엎드려뺨쳐, 손들고 서있기, 무릎꿇기 등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체벌	교사의 언어폭력
1위	대전(61.8%)	경북(77.1%) 울산(77.1%)	대전(54.0%)
2위	경북(59.6%)		경북(53.2%)
3위	울산(58.3%)	대전(76.1%)	부산(51.7%)
4위	전남(56.5%)	부산(69.0%)	울산(51.0%)
5위	경남(54.5%)	충북(68.4%)	충북(47.6%)
6위	부산(54.3%)	충남(68.3%)	광주(47.3%)
7위	충북(50.3%)	전남(68.0%)	전남(45.2%)
8위	광주(47.0%)	인천(64.9%)	경남(43.5%)
12위	전북(42.1%)	광주(51.5%)	충남(38.7%)
14위	서울(29.1%)	경기(42.6%)	강원(34.7%)
15위	강원(27.3%)	서울(39.7%)	대구(32.3%)
16위	경기(25.7%)	제주(36.2%)	제주(24.4%)

학교에서의 체벌 및 언어폭력 빈도 (한 달에 1~2번 이상 합산)

순위	지역	빈도	백분율
1	대전	190	69.9%
2	울산	128	66.7%
3	경북	119	63.3%
4	전남	419	61.4%
5	부산	252	59.7%
6	충북	172	58.7%
7	인천	255	56.3%
10	광주	169	51.2%
11	전북	133	46.0%
13	경기	123	43.3%
14	서울	204	39.5%
15	강원	123	36.5%

두발-복장규제 '우수' 다발 지역

순위	머리 길이에 대한 규제	머리 색깔이나 모양에 대한 규제	양말, 외투 등 복장 규제
1위	대전(89.0%)	대전(94.9%)	울산(82.8%)
2위	인천(79.9%)	부산(94.1%)	대전(80.1%)
3위	부산(77.7%)	울산(90.1%)	부산(80.1%)
4위	충북(69.5%)	인천(89.2%)	충북(78.6%)
5위	울산(65.1%)	경북(86.2%)	경북(74.5%)
12위	서울(37.8%)	경기(76.8%)	충남(64.4%)
13위	전북(31.1%)	제주(74.2%)	전남(62.6%)
14위	경기(20.4%)	전북(72.0%)	광주(60.3%)
15위	광주(18.2%)	전남(68.8%)	강원(56.6%)
16위	강원(10.9%)	광주(48.8%)	제주(53.6%)

강제학습 '우수' 다발 지역

방과후학교,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등을 강제로 하게 하는 것

1위	경북 (90.4%)
2위	대전 (84.9%)
3위	울산 (80.7%)
4위	광주 (69.1%)
5위	부산 (66.1%)
6위	인천 (65.6%)
14위	경기(39.8%)
15위	강원(24.2%)
16위	서울(23.3%)

자유시간 휴대전화 규제 '우수' 다발 지역

쉬는시간, 점심시간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순위	지역
1	울산92.2%
2	대전88.2%
3	경북87.8%
4	인천86.3%
5	경남86.2%
8	광주80.9%
12	경기72.2%
13	대구71.5%
14	전북71.0%
15	서울52.7%
16	강원51.6%

성적 공개 모욕 '우수' 다발 지역

성적(점수, 등수) 공개나 성적을 이유로 모욕감을 주는 것

1위	부산(57.6%)
2위	경북(53.7%)
3위	울산(53.6%)
4위	대전(53.0%)
5위	광주(47.6%)
6위	경남(42.6%)
7위	인천(42.1%)
	전남(42.1%)
12위	대구(34.3%)
	서울(34.3%)
14위	충남(33.8%)
15위	강원(29.5%)

학생 참여+의사 '우수' 목살 지역

순위	교칙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의 의견이 잘 반영된다(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학생들이 학교나 교사에 의견을 말하면 잘 반영된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교사나 학교에 의견을 말할 때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된다(매우 그렇다 + 조금 그렇다)
1위	대전 (84.2%)	대전 (89.0%)	울산 (74.0%)
2위	부산 (83.6%)	부산 (84.6%)	경북 (71.8%)
3위	경북 (83.5%)	울산 (83.9%)	대전 (68.4%)
4위	울산 (82.3%)	경북 (77.1%)	부산 (68.0%)
5위	인천 (71.7%)	대구 (75.1%)	인천 (62.3%)
6위	대구 (71.7%)	충남 (74.8%)	경기 (62.0%)
7위	서울 (71.1%)	경기 (73.9%)	광주 (61.5%)
10위	충북 (68.8%)	서울 (72.1%)	전북 (55.2%)
11위	경기 (68.0%)	전북 (72.0%)	전남 (55.0%)
13위	광주 (65.8%)	전남 (69.6%)	충남 (54.9%)
14위	전북 (63.8%)	광주 (67.9%)	서울 (53.7%)

상벌점제 폐해 '우수' 지역

순위	사소한 잘못/실수에도 벌점을 준다		벌점 또는 상점을 무기로 학생을 협박한다		벌점 또는 상점을 주는 기준이 교사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다	
1위	충북	67.3%	울산	61.5%	대전	80.9%
2위	대전	65.1%	경북	59.0%	충북	79.8%
3위	울산	60.9%	인천	58.9%	인천	79.7%
4위	인천	58.5%	부산	58.3%	울산	79.7%
5위	부산	56.9%	충북	58.2%	경북	79.3%
6위	경북	55.9%	대전	57.4%	경기	77.8%
7위	대구	52.7%	경기	54.9%	전남	73.4%
9위	전북	47.2%	전북	47.9%	서울	72.5%
11위	경기	45.8%	대구	47.0%	전북	71.4%
12위	충남	45.6%	서울	45.4%	제주	71.3%
14위	서울	42.2%	제주	41.8%	경남	69.5%

인권교육 미실시 '우수' 지역

학생인권교육 미실시 또는 미흡('받아본 적 있다'는 응답이 적은 순서)

1위	울산 (5.2%)
2위	대전 (6.3%)
3위	경북 (6.9%)
4위	대구 (7.5%)
5위	부산 (7.8%)
10위	강원 (12.6%)
11위	서울 (13.4%)
13위	전북 (14.5%)
15위	경기 (19.4%)
16위	광주 (23.6%)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우수' 지역

순위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		학교는 학생들을 차별적으로 대한다		학교 규칙(교사의 생활지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1위	대전	52.2%	경북	72.3%	대전	80.9%
2위	경북	51.1%	부산	70.1%	부산	78.0%
3위	부산	49.1%	대전	68.8%	경북	76.6%
4위	울산	46.4%	울산	64.6%	울산	71.9%
5위	광주	44.8%	광주	63.0%	인천	67.1%
6위	경기	43.0%	경기	58.8%	충북	58.8%
7위	인천	38.9%	인천	56.7%	광주	57.3%
8위	충북	35.0%	서울	56.1%	전남	56.4%
9위	대구	33.9%	전남	53.7%	서울	55.6%
13위	서울	30.0%	대구	48.2%	전북	51.6%

인권변화 체감지수 '우수' 미달 지역

학교는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쪽(학생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1위	경북 (68.7%)
2위	대전 (66.2%)
3위	울산 (65.6%)
4위	부산 (65.4%)
5위	대구 (63.4%)
6위	전남 (62.6%)
7위	인천 (61.2%)
10위	전북 (58.1%)
12위	서울 (56.2%)
14위	경기 (49.6%)
15위	광주 (46.6%)
16위	강원 (45.4%)

학생인권 침해 전국 '5대 상위' 지역

지역	인권침해 항목									합계
	1	2	3	4	5	6	7	8	9	
대전	13	14	4	4	2	13	10	4	16	80
울산	8.5	9	3	5	3	10	10	5	9	62.5
경북	11.5	2	5	3	4	9	1	3	17	55.5
부산	4	10	1	0	5	10	3	1	13	47
인천	0	6	0	2	0	2	8	0	1	19
충북	2	4	0	0	0	0	10	0	0	16
광주	0	0	2	0	1	0	0	0	2	5
대구	0	0	0	0	0	1	0	2	1	4
전남	2	0	0	0	0	0	0	0	0	2
경남	1	0	0	1	0	0	0	0	0	2

문항별 상관관계 심층 분석

체벌과 학칙 스트레스

			학교 규칙(교사의 생활지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총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교사에 의한 손발이나 도구를 활용한 체벌	자주 있다	개수	589	214	118	35	956
		%	61.6%	22.4%	12.3%	3.7%	100.0%
	가끔 있다	개수	567	579	413	155	1714
		%	33.1%	33.8%	24.1%	9.0%	100.0%
	별로 없다	개수	275	465	483	243	1466
		%	18.8%	31.7%	32.9%	16.6%	100.0%
	전혀 없다	개수	251	428	478	535	1692
		%	14.8%	25.3%	28.3%	31.6%	100.0%

			학교 규칙(교사의 생활지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총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교사에 의한 기합	자주 있다	개수	852	393	187	90	1522
		%	56.0%	25.8%	12.3%	5.9%	100.0%
	가끔 있다	개수	511	696	542	225	1974
		%	25.9%	35.3%	27.5%	11.4%	100.0%
	별로 없다	개수	177	339	450	234	1200
		%	14.8%	28.2%	37.5%	19.5%	100.0%
	전혀 없다	개수	142	258	311	418	1129
		%	12.6%	22.9%	27.5%	37.0%	100.0%
총계		개수	1682	1686	1490	967	5825
		%	28.9%	28.9%	25.6%	16.6%	100.0%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스트레스 높다

두발-복장규제와 학칙 스트레스

			학교 규칙(교사의 생활지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총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머리길이 규제	자주 있다	개수	1024	616	294	124	2058
		%	49.8%	29.9%	14.3%	6.0%	100.0%
	가끔 있다	개수	170	269	264	140	843
		%	20.2%	31.9%	31.3%	16.6%	100.0%
	별로 없다	개수	194	286	344	155	979
		%	19.8%	29.2%	35.1%	15.8%	100.0%
	전혀 없다	개수	295	513	585	547	1940
		%	15.2%	26.4%	30.2%	28.2%	100.0%

			학교 규칙(교사의 생활지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총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머리 색깔/모양 규제	자주 있다	개수	1370	1042	633	333	3378
		%	40.6%	30.8%	18.7%	9.9%	100.0%
	가끔 있다	개수	172	363	429	231	1195
		%	14.4%	30.4%	35.9%	19.3%	100.0%
	별로 없다	개수	90	181	242	168	681
		%	13.2%	26.6%	35.5%	24.7%	100.0%
	전혀 없다	개수	50	99	185	232	566
		%	8.8%	17.5%	32.7%	41.0%	100.0%

			학교 규칙(교사의 생활지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총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양말, 외투 등 옷에 대한 규제	자주 있다	개수	1189	785	412	184	2570
		%	46.3%	30.5%	16.0%	7.2%	100.0%
	가끔 있다	개수	277	450	473	222	1422
		%	19.5%	31.6%	33.3%	15.6%	100.0%
	별로 없다	개수	133	268	338	203	942
		%	14.1%	28.5%	35.9%	21.5%	100.0%
	전혀 없다	개수	84	182	265	358	889
		%	9.4%	20.5%	29.8%	40.3%	100.0%

두발, 복장규제 많을수록 스트레스 높다

휴대전화 규제와 학습 스트레스

			학교 규칙(교사의 생활지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총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쉬는시간, 점심시간에 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	자주 있다	개수	1411	1227	897	508	4043
		%	34.9%	30.3%	22.2%	12.6%	100.0%
	가끔 있다	개수	67	120	167	68	422
		%	15.9%	28.4%	39.6%	16.1%	100.0%
	별로 없다	개수	66	106	141	83	396
		%	16.7%	26.8%	35.6%	21.0%	100.0%
	전혀 없다	개수	136	229	283	307	955
		%	14.2%	24.0%	29.6%	32.1%	100.0%

휴대전화도 사용 못할수록 스트레스 높다

강제학습과 숨 막힘 정도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				총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방과후학교, 보충수업, 야간자율학 습 등을 강제로 하게 하는 것	자주 있다	개수	451	741	688	324	2204
		%	20.5%	33.6%	31.2%	14.7%	100.0%
	가끔 있다	개수	88	244	380	225	937
		%	9.4%	26.0%	40.6%	24.0%	100.0%
	별로 없다	개수	65	198	441	287	991
		%	6.6%	20.0%	44.5%	29.0%	100.0%
	전혀 없다	개수	74	225	600	790	1689
		%	4.4%	13.3%	35.5%	46.8%	100.0%

강제된 과중한 학습이 숨 막히게 만든다

상벌점제 폐해와 학칙 스트레스

			학교 규칙(교사의 생활지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총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사소한 잘못으로도 벌점을 준다	매우 그렇다	개수	783	334	119	36	1272
		%	61.6%	26.3%	9.4%	2.8%	100.0%
	조금 그렇다	개수	462	620	416	156	1654
		%	27.9%	37.5%	25.2%	9.4%	100.0%
	별로 그렇지 않다	개수	301	519	668	299	1787
		%	16.8%	29.0%	37.4%	16.7%	100.0%
	전혀 그렇지 않다	개수	138	213	287	475	1113
		%	12.4%	19.1%	25.8%	42.7%	100.0%

상벌점제 오남용 심할수록 스트레스 커진다

체벌과 상벌점제 폐해

			사소한 잘못으로도 벌점을 준다				총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교사에 의한 손발, 도구를 활용한 체벌	자주 있다	개수	409	280	181	87	957
		%	42.7%	29.3%	18.9%	9.1%	100.0%
	가끔 있다	개수	414	591	501	207	1713
		%	24.2%	34.5%	29.2%	12.1%	100.0%
	별로 없다	개수	223	416	569	259	1467
		%	15.2%	28.4%	38.8%	17.7%	100.0%
	전혀 없다	개수	228	370	538	562	1698
		%	13.4%	21.8%	31.7%	33.1%	100.0%

상벌점제 체벌 대체효과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 참여와 학칙 스트레스

			학교 규칙(교사의 생활지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총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교칙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의 의견이 잘 반영된다	매우 그렇다	개수	58	70	94	178	400
		%	14.5%	17.5%	23.5%	44.5%	100.0%
	조금 그렇다	개수	125	325	520	359	1329
		%	9.4%	24.5%	39.1%	27.0%	100.0%
	별로 그렇지 않다	개수	441	788	650	288	2167
		%	20.4%	36.4%	30.0%	13.3%	100.0%
	전혀 그렇지 않다	개수	1058	502	228	142	1930
		%	54.8%	26.0%	11.8%	7.4%	100.0%

학칙에 의견 반영될수록 스트레스 낮다

학교에 대한 인식 간 상관관계

			학교 규칙(교사의 생활지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총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학교는 학생들을 차별적으로 대한다.	매우 그렇다	개수	462	433	225	75	1195
		%	38.7%	36.2%	18.8%	6.3%	100.0%
	조금 그렇다	개수	157	638	853	358	2006
		%	7.8%	31.8%	42.5%	17.8%	100.0%
	별로 그렇지 않다	개수	51	290	877	386	1604
		%	3.2%	18.1%	54.7%	24.1%	100.0%
	전혀 그렇지 않다	개수	8	50	153	813	1024
		%	0.8%	4.9%	14.9%	79.4%	100.0%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				총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학교는 학생들을 차별적으로 대한다.	매우 그렇다	개수	462	433	225	75	1195
		%	38.7%	36.2%	18.8%	6.3%	100.0%
	조금 그렇다	개수	157	638	853	358	2006
		%	7.8%	31.8%	42.5%	17.8%	100.0%
	별로 그렇지 않다	개수	51	290	877	386	1604
		%	3.2%	18.1%	54.7%	24.1%	100.0%
	전혀 그렇지 않다	개수	8	50	153	813	1024
		%	0.8%	4.9%	14.9%	79.4%	100.0%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				총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학교 규칙(교사의 생활지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매우 그렇다	개수	546	619	385	131	1681
		%	32.5%	36.8%	22.9%	7.8%	100.0%
	조금 그렇다	개수	81	515	768	322	1686
		%	4.8%	30.5%	45.6%	19.1%	100.0%
	별로 그렇지 않다	개수	39	231	796	427	1493
		%	2.6%	15.5%	53.3%	28.6%	100.0%
	전혀 그렇지 않다	개수	12	44	160	752	968
		%	1.2%	4.5%	16.5%	77.7%	100.0%

학교가 차별적일수록 스트레스 높고 숨 막힌다
학칙 스트레스 높을수록 숨 막힌다

요약과 시사점

- ✖ 학생인권침해 현황은 한국 교육의 잔혹한 자화상
- ✖ 학생인권조례 등 정책 추진 지역의 학생인권 수준 상대적으로 높은 편. 한번도 정책 추진 안된 곳은 상위권 싹쓸이.
'진보교육감' 취임 지역의 견인차 역할 중요
- ✖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역도 인권침해 정도는 심각한 편. 학생인권의 현재를 출발점 삼아 적극적 정책 펼쳐야
- ✖ 사는 지역에 따라 인권수준의 현격한 차이, 전국적 보장 방안 마련돼야